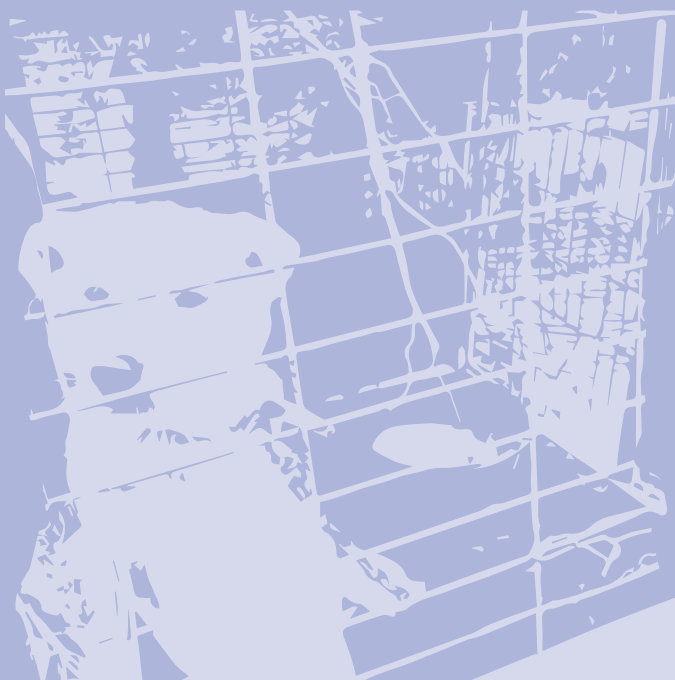


그 개는 어쩌서 무고한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했나

news 1

이상훈 기자



2021
기자의 세상보기



남양주 사능리 야산을 산책하던 50대 여성이 문제견에게 습격 당해 숨진 현장

야산에서 유기견이 사람을 물어 숨지게 했다. 도시에서 다리를 문 것도 아니고 뒷목을 물었다. 숨진 50대 여성은 개를 위협하지도 않았는데 숨질 때까지 공격을 당했다. 개는 목줄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봐서 사람이 상당 기간 키운 흔적이 역력했다. 12년간 기자생활을 해오면서 처음 접한 극히 드문 사례다.

나는 개와 동물을 좋아하고 야산도 좋아한다. 평소 등산을 즐기지만 대형 유

기견을 목격하는 일은 드물다. 더구나 공격 성향의 개는 더욱 본 적이 없다. 길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유기견들은 사람을 피해 달아나지 않던가. 그 개의 삶이 몹시 궁금했다.

내 구역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으나 5월 22일 나는 쉬는 날이었기에 첫 보도를 놓쳤다. 선행 보도들을 참고했더니 ‘골든리트리버’라고 했다. 그 견종은 온순하기로 유명하지 않은가? 적잖이 놀랐다. 다음 날



50대 여성이 개에게 습격 당해 숨진 현장 일대 불법 개사육장서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된 개들



사건 현장을 점검하는 남양주북부경찰서 형사과장과 수사팀, 그리고 동물보호단체 '카라' 관계자들

부터 나는 이 사건에 집중했다.

취재에 돌입했더니 골든리트리버가 아니었다. 이 사건 보도 첫날 당시 골든리트리버라고 보도했던 기자들은 해당 전종의 애견가들에게 집중항의를 받았다고 한다.

내가 본격적으로 보도량을 늘리기 시작하자 취재 현장에서 마주친 타사의 선배 기자는 “너, 개물림 사건 많이 쓰는데 항의메일이랑 전화 안 받았냐?”고 물어왔다. 나는 항의를 받은 적이 없다. 이 사건에 대한 나의 첫 보도는 ‘골든리트리버가 아니라 풍산개+사모예드 혼종 유기견’이라는 정보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후속은 사건이 벌어진 현장이 야산이라기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불법 개사육장

바로 코앞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경찰은 ‘인근에 개농장이 있다’ 고만 했다.

주소를 알아내 찾아갔더니 끔찍하게 비위생적인 불법 개사육장이 나타났다. 개사육장 주인은 없었다.

야산 곳곳에 조악한 철창과 우리가 설치됐고 폐기물들이 너저분하게 버려져 있었다. 육안으로 확인한 개들은 총 45마리였다. 그 중에는 목줄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개도 두 마리 있었다.

개들에게는 음식폐기물로 추정되는 밥 찌꺼기가 제공되고 있었다. 군대에서 수개월에 한번씩 처리하는 ‘짬통(음식폐기물)’의 내용물과 흡사한 먹이었다. 개사육장을 설치한 이가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였다. 물은 따로 제공되지 않았고 더러운 그릇에 빗물이 잔뜩 고여 있었다. 개들은 빗물을 먹고 힘겨운 생을 연명하고 있었다.

자기 몸집 만한 우리에 갇힌 개들은 스스로의 분노 위에서 생활했다. 한 예민한 개는 그 더러운 바닥을 밟기 싫어 개밥그릇 위에 외줄을 단듯이 올라가 있었다. 너무 힘들어 보였는데 개 밥그릇 위에서 중심을 잡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가기를 반복했다. 일종의 스트레스성 틱장애 현상처럼 보였다. 과거 따뜻하고 청결한 실내에서 생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개였다.

말라뮤트로 추정되는 개는 ‘얏아’,

‘손’ 하면 내밀었다. 상당한 인내력과 지능을 갖추고 있었으나 그 개가 사는 환경 또한 열악했다.

나는 문제견(피해여성을 숨지게 한 개)이 유기견이라기보다는 이 개사육장 일대에서 장기간 생활했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문제견으로서는 쉽게 다른 개들의 먹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도 이 사건에 대해 혼란스러워했다.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과장은 “범행동기를 개한테 물어볼 수 없어 참 난감하다”고 털어놨다. 현장에서 만난 담당 형사도 “CCTV도 개가 공격하기 직전의 장면을 포착하지 못해 어떤 상황에서 사건이 벌어진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나는 문제견이 이 개사육장 일대에서 두 달 이상 살았다는 사실을 처음 밝혀냈다. 이에 대해 동물행동전문가에게 문의했더니 “개사육장 주인이 허락하는 분위기를 내비쳤기에 문제견이 그곳에서 살았을 것이다. 엄밀히 따지면 유기견이 아니라 개사육장 주인이 견주라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출판 ‘모르는 개’라고 자신이 문제견의 견주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개사육장 주인이 “두 달 전 이 개를 처음 봤고 다가 오길래 쓰다듬어 준 적이 있다”고 경찰에 진술한 사실을 밝혀냈다.

개사육장 주인과 문제견은 마냥 모르는 사이가 아니었던 것이다.

사상 초유의 개와 사람 간의 현장검증이 개사육장 일대에서 열렸다. 경찰은 문제견이 개사육장 주인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위주로 조사했다.

현장검증이 이뤄진 다음 날 나는 또 다시 현장에 취재 갔다. 그곳에서 동물보호단체 대표와 회원들을 만났다. 비가 온 뒤라 땅은 온통 진흙이었고 나도 동물보호단체 회원들도 신발과 옷이 진흙투성이가 됐다.

동물보호단체는 현장을 둘러보며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면서 근본 원인을 지적했다. 문제견을 안락사하는 것은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견해를 강조했다. 문제견의 행동을 분석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



동물보호단체 ‘카라’ 관계자들이 불법 개사육장의 실태를 점검하는 모습



불법 개사육장에 갇힌 개들 중 한 마리가 체념한 표정으로 철창 바깥을 바라보는 모습



사건 현장 일대 목줄 없는 ‘진돗개(50대 여성 공격의 공범)’를 포획하기 위해 시 관계자들이 설치한 철제 구조물

도록 면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때 이 사건 담당 경찰관들이 현장에 나타났다. 다가가서 대화를 청하자 현장검증 때의 일화를 설명했다. 경찰견 훈련사가 문제견을 개사육장으로 호송해오자 마구 짖던 개들이 일순 조용해졌다는 것이다.

경찰이 설명했다. “훈련사가 그러더라고, 개(문제견)가 이 구역을 오래 전에 접수했다. 여긴 개가 관리하는 구역이다.”

문제견을 비롯해 개사육장의 45마리 개들 사이에 서열이 정해졌다는 상황도 문제견이 유기견이 아니라 오랜 시간 이곳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계속해서 경찰이 설명하기를 “그리고

줄줄 따라다니는 진돗개 부하도 있었어. 문제견이 피해자를 공격할 때 옆에서 같이 위협했던 녀석이야. (손가락으로 개사육장 사이의 진돗개를 가리키며) 바로 저놈이야.”

한 마리 개만 피해자를 공격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다. 피해자가 산책을 나섰다가 위협적인 개들을 보고 돌아서는 모습, 그런 여성을 쫓아가 도약해 뒷목을 무는 문제견의 모습, 3분간 잔혹하게 공격하는 모습들이 머릿속을 지나갔다.

내 눈 앞에 보이는 진돗개는 엄밀히 따지자면 ‘살인의 공범’이었다. 그러나 사람이 아니기에 잡혀가지도 조사 받지도 않고 죽어가는 사람을 위협하던 그 현장

에 그대로 있었다. 그 진돗개는 유난히 사납게 짖어댔다.

현장에서 만난 경찰은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CCTV 영상을 내게 보여줬다. 다만 영상을 넘겨주지는 않았다. 경찰의 설명대로 문제견과 함께 진돗개도 피해여성 공격에 가담한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

사람이 숨질 때까지 공격했던 개들 중 주범인 개는 잡혀갔고, 근처에서 위협했던 개는 현장에 남아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 그 설명을 듣고 진돗개에게 다가갔더니 그 개는 나를 향해 매섭게 짖었고 내가 등을 보이면 성공성큼 쫓아오곤 했다. 이 진돗개는 재범의 여지가 크다.

만약 나처럼 성인 남성이 아니라 노약자이거나 여성이라면 이 진돗개는 또 공격

하지 않을까? 이 야산 일대는 나물을 캐러오는 노인들이 많다는데,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 것일까?

이 질문들에 경찰들도 ‘이 사건이 생소하고 어떻게 종결해야 할지 난처하다’고 털어놨다. 불법 개사육 실태가 역력하지만 개는 소유자의 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함부로 현장을 철거하기도 난감하다고 솔직하게 설명했다. 경찰로서도 이 사건은 이례적이고 앞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불법 개사육장 처리는 관할 지자체에서 담당한다. 시 동물보호팀에 문의했더니 “문제견을 안락사하지 말라, 입양하겠다”는 민원전화 폭주로 인해 업무가 마비됐다고 호소했다. 유족에게는 가슴 아픈 소식이지만, 망자보다 맹수로 돌변한 개를 우선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세태에 또 놀랐다. 이 사실을 비중 있게 보도했고, 곧 사회적 찬반 논란 이슈가 됐다.

마치 세대 갈등, 진영 갈등, 남녀 갈등, 빈부 갈등처럼 우리사회의 만연한 갈등의 또 한 예를 봤다. 애견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갈등이었다. 애견인들은 개를 ‘아이’라고 불렀다. 피해여성을 죽음에 이르게 한 개에 대해서도 ‘그 아이도 사연이 있는 불쌍한 아이일 것’이라고 일단 변호했다.

반면 안락사를 주장하는 이들은 극성 애견인들에 대해 ‘개빠’라고 비하했다. 마



비위생적 환경의 불법 개사육장 가운데서 목줄 없는 진돗개가 취재기자를 향해 짖는 모습

사건 현장 일대 불법 개사육장에서 취재기자를 보고 꼬리 흔들며 ‘손’이라고 말하면 앞발을 내밀고, ‘앉아’라고 하면 앉던 개

치 특정 정치인들의 추종자들에게 ‘-빠’라고 비하하는 것처럼, 그들 사이에 통용되는 비하언어가 있었다.

나는 그런 부정적 소통이 우리사회에 널리 퍼져있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됐다. 이 작은 나라에 참으로 다종다양한 갈등 양상이 상존한다는 사실에 한편으로는 안타까웠다.

기사 작성을 처음 배울 때 흔히들 ‘개가 사람을 물면 기사가 안 되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기사가 된다’는 비유를 들곤한다. 그러나 개가 사람을 물어 숨지게 하면 큰 기사가 된다. 개의 공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

책 마련을 집중보도해야 하는 것이 기자의 책무다.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뜻밖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발생할 가능성이 컸던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됐다. 야생동물의 삶보다 더 열악한 개사육장의 지옥 같은 삶에서 탈출하고 싶었고 실제로 탈출했던 개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게 탈출한 개는 낯선 인간을 어떻게 생각할까?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고 제한하게 만드는 적으로 간주하지 않았을까?

특히 안타까운 점은 무고한 인명이 피

★ 견주를 찾습니다 ★



<사모에드-풍산개 믹스견 추정 (수컷 / 5년이하 / 흰색)>

★ 특징

- 목줄 없음 (목줄 흔적은 있음)
- 중성화 여부 확인 불가, 내장인식칩 없음
- 몸무게 25kg (많이 야윈편)
- 머리 ~ 꼬리 150cm, 높이 80cm 가량

위 개의 견주 혹은 목격하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세요

- ☎ 남양주북부경찰서 강력팀 010-2471-7034
- ☎ 남양주북부경찰서 강력팀 031-869-6383
- ☎ 남양주북부경찰서 형사지원팀 031-869-6268

남양주북부경찰서에서 ‘견주를 찾는다’고 배포한 전단지

해를 겪었다는 사실이다. 숨진 여성은 자신을 공격한 개를 위협하거나 공격하지 않았다. 개들을 버리고, 또 가둔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그 죄업은 돌고 돌아 결국 무고한 사람에게 전가된 것이다.

개는 수 만 년 전부터 인간과 어울리며 살았다. 인간이 가장 신뢰하는 동물이다. 인간이 키웠던 한두 마리 개가 처음 본 힘없는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했다. 함께 사는 세상에 동물들을 배려하지 않으면 이러한 비극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 더 늦기 전에 깊이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